영국 찰스 3세 74세에 국왕 즉위

왕세자 책봉 65년만에
6일 1000년 전통 방식 대관식
각국 인사·왕족 등 2000여명 초청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오는 6일 성대한 대관식을 치르고 정식으로 왕관을 쓴다.

74세 찰스 3세 국왕은 이번 대관식에서 왕좌에 앉아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임을 만천하에 알린다.

찰스 3세는 4살 때인 1952년 여왕이 즉위하며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됐다. 9살이던 1958년 영국 왕세자(Prince of Wales)로 정식 책봉된 이래로도 65년만이다.

영국의 대관식은 1953년 6월 2일 엘리자베스 2세 이후 70년 만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관식은 1066년 윌리엄 1세 이후로 이어진 전통으로, 찰스 3세는 이 곳에서 대관식을 치른 40번째 국왕이 된다.

시대가 흐르며 대관식의 의미와 형식이 달라졌지만 기본 뼈대는 고스란히 지켜진다.

이날 행사는 찰스 3세 부부가 버킹엄궁에서 마차를 타고 와서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대관식을 한 뒤 다시 버킹엄궁으로 돌아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국왕 등 왕실 가족들이 발코니에 나와 인사를 하면 마무리된다.

5일엔 버킹엄궁 리셉션, 7일엔 배우 톰 크루즈, 안드레아 보첼리 등이 출연하는 윈저성 콘서트가 있다.

대관식은 종교적인 행사로, 영국 국교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한다.

왕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들은 전통적인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왕실의 역사적인 예식인 대관식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와 왕족 등 2000여명이 초청됐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한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영연방인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이 참석 계획을 밝혔다.

다른 나라 왕족 중에는 스페인, 스웨덴 등의 국왕과 일본 왕세제 등이 참석한다.

영국에선 리시 수낵 총리와 전직 총리 등도 초청받았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영웅과 지역 자원봉사자 등 대영제국 훈장 수훈자들, 국왕의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청년들 등 850명도 초청됐다.

찰스 3세의 맏손자로 왕위 승계 서열 2위인 9세 조지 왕자는 국왕의 명예시동 역할을 맡았고, 왕실과 결별한 찰스 3세의 둘째 아들 해리 왕자는 가족 없이 혼자 참석한다.

커밀라 왕비의 전남편과 그사이에 얻은 자녀들도 초청받았고, 손자들은 명예시동으로 할머니의 옷자락을 드는 역할을 맡았다.

영국은 대관식을 치르면서 엘리자베스 2세를 지주 삼아 지내온 전후 70년을 뒤로 하고 찰스 3세 시대에 본격 접어든다.

찰스 3세는 즉위 후 왕실 현대화에 시동을 걸었으며, 대관식은 새로운 왕실로 변모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는 물가 급등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왕실 운영을 효율화하고 세금으로 치르는 대관식 규모도 축소키로 했다.

다문화·다종교 사회인 현대 영국의 모습을 반영해 다양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대관식에 다른 종교 성직자들을 초청하고, 국교회뿐 아니라 모든 신앙을 지킨다고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은 간소화하게 치러질 예정이지만 그 비용이 최소 1억 파운드(16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G7, 챗GPT 책임 부여 원칙 합의 규제 놓고는 유럽과 美日 온도차

일본서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와 관련, 세계 각 국이 활용 및 규제 수준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에서 G7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자는데는 합의했지만, 규제를 강조하는 유럽과 활용에 무게를 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온도 차가 드러났다.

G7은 AI 등 신기술 이용과 관련해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 ▲적절한 절차 ▲기술 혁신 기회로 활용 등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한 것은 AI 개발에 적극적인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민 감시와 여론 조작에 악용되지 않도록 중국과 러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견제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G7은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Data Free Flow with Trust) 촉진을 위한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경을 초월해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교환할 때 활용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국제적인 틀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챗GPT와 같이 문장과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는 편리성 때문에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도 드러나 일정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G7은 이번 회의에서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규제할 것이냐는 각론에는 발을 들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는 "새로운 법에 따른 엄격한 대응을 지향하는 유럽연합(EU)과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타협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U는 2021년부터 유럽 각국의 법률이 될 AI 규칙을 논의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기업 측의 자율 규제와 관민 가이드라인과 같은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대응을 지향해왔다.

이번 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 의장인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인류의 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기술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동시에 적절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뒤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책임 있는 AI'의 추진을 위해 국제적인 기술 표준의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럽과 미일 양측의 서로 다른 견해가 사실상 병기됐다.

아사히신문은 "'동상이몽'의 합의가 된 각료선언(공동성명)"이라고 평가한 뒤 "AI를 둘러싼 각국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양안 대리전' 파라과이 대선 '친 대만'계 페냐 당선

친중 좌파 정권교체 예상 빗나가
우파 성향 콜로라도당 후보 압승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대리전 양상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끈 파라과이 대선에서 '친 대만' 우파 성향의 산티아고 페냐(44) 집권당 후보가 승리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콜로라도당(공화국민연합당·ANR) 소속 페냐 후보는 3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개표율 92.24% 기준 43.07%의 득표율로, 27.49%를 득표한 중도좌파 성향 에프라인 알레그레(60) 후보를 예상 밖으로 크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페냐 당선인은 이날 오후 7시 35분께 아순시온 당사에서 한 당선 수락 연설에서 "콜로라도당의 위대한 승리"라며 "여러분과 함께 조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세 초·중반 여론조사에서는 친중 좌파 성향의 야당 후보인 알레그레가 1위를 차지하며 지지자들로부터 '정권교체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알레그레 후보는 그러나 유세 막판 야권 대분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무릎을 꿇었다.

알레그레의 득표율은 2018년 대선 출마 당시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51) 현 대통령을 상대로 얻었던 득표율(43.04%)에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페냐의 당선으로 수십년간 파라과이 정계를 주름잡으며 '영원한 여당'으로 자리 잡은 콜로라도당은 그 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당선을 확정하고 수도 아순시온에서 활짝 웃고 있다. 콜로라도당(공화국민연합당·ANR) 소속 '친 대만' 우파 성향인 페냐는 이날 치러진 대선에서 42.74%의 득표율(개표율 99.89% 기준)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페냐 당선인은 경제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할 전망이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및 대만과의 연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과이는 대만의 13개 수교국 중 한 곳이다.

이에 따라 페냐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는 대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난 1월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워싱턴(미국), 예루살렘(이스라엘),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관계를 계속 안고 갈 것"이라며 "이 삼각형은 파라과이 발전을 위한 구도"라고 역설했다. 남미로만 한정하면 주요 13개국 중 에콰도르와 우루과이를 포함해 3개국이 우파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우크라, 크림반도 유류시설 공격 인정

"봄철 대반격 위한 준비 과정"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를 겨냥한 공격이 자국군에 의한 것이며 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밝혔다.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나탈리야 후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에서 전날 발생한 유류 저장고 화재를 거론하면서 "병참 기지를 파괴한 것은 우리군의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말했다.

후메뉴크 대변인은 "(유류 저장고 파괴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대규모 공세를 앞두고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항구도시인 세바스토폴의 한 유류 저장고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개 소방대가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합병한 지역이며, 러시아 흑해 함대는 세바스토폴에 주둔하고 있다. 최근 세바스토폴을 겨냥해 고속 무인정과 드론 등을 활용한 공격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공격 주체임을 시인한 적은 거의 없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4개 블록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측이 바흐무트 서쪽의 4개 블록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바흐무트는 동부 도네츠크주의 주요 도시인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뱐스크로 진격할 수 있는 요충지다. 러시아가 지난해 7월부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공세를 집중하면서 도시는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준비 중으로 알려진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최대한 점령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동원병 및 용병뿐 아니라 특수부대까지 동부 및 남부 전선에 투입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바흐무트는 교전이 치열한 곳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병력을 최대한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